

염태영 부지사, 서울 정무부시장 직격 “추모는 국민의 바람”

10·29 참사 추모공간 두고 목소리 낸 김동연 지사 원색적 비난에 역공
“기억하고 되풀이 막는 일은 공직자의 과제” 서울시에 자세 변화 촉구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0·29 참사’에 대해 서울시가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염 부지사의 이번 발언은 서울시의 녹

사평역 내 10·29 참사 추모공간 조성계획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지난 6일 “10·29 참사 추모 공간을 차갑고 어두운 지하에 가두지 말아 달라”며 유가족 의견에 동조

하자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데 따른 대응 격이다.
염 부지사는 10일 SNS에서 “‘10·29 참사 추모 공간을 차갑고 어두운 지하에 가두지 말아 달라’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서울시가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며 “유가족들의 한은 깊은 곳에 밀어

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진실 규명과 충분한 위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김동연 지사의 고언을 ‘참 어이없고 뻔뻔하다’며 비난했다. 유가족의 아픔에 진정성 있게 함께하자는 제안이 얼마나 짙었으면 그저 막말과 비아냥으로 남 공격이나

해대는 서울시가 참으로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이 양반’이라고 지칭하며 최소한의 품위도 던져 버렸다. 서울시 고위공직자의 품격을 의아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모와 치유에는 여야도, 대립도 없어야 한다’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정치적 혐오를 넘어선 국민의 바람”이라며 “우리가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는 당연한 과제이자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서울시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박진 기자 gun@khihoilbo.co.kr

창작자 맞춤형 지원 K-컬처 성장 도울 것

interview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급변하는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 흐름에 맞춰 창작자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원하는 경기도민의 요구에 맞춰 경기도의 K-컬처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기술, 영상·영화, 음악, 출판·만화·애니메이션, 게임·e스포츠와 같은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유통, 해외 진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기도 콘텐츠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도모하며 4개 권역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경제·사회·문화 활성을 목적으로 융·복합 분야 창업가 양성과 함께 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민세희 원장은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으로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프리즈·키아프 서울 같은 아트페어가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성황리에 개최돼 패션과 미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크게 향상됐고, 이 같은 도민 요구에 부응해 진흥원이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민 원장은 “기술 발전으로 제작 환경도 급변하는 상황이다. 창작자의 제작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들의 형태도 변화해야 한다”며 “영화의 경우 촬영 시스템과 유통망이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변화에 적응하겠다”고 했다.

진흥원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융·복합과 변화에 중점을 둔다. 민 원장은 올해부터 ‘K-콘텐츠 제작 지원’과 ‘IP(웹툰·웹소설 따위 문학 또는 미술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산업

급변하는 제작 환경에 발맞춰 웹툰 등 IP 산업 융복합 지원 중기 제작사 시장진출 뒷받침 문화 콘텐츠 향유 기회 확대



융·복합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 원장은 “그간 소외됐던 중견 제작사 영화들과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시리즈 제작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 콘텐츠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총 12개 프로젝트를 지원해 우수 콘텐츠 IP 전시·유통, 홍보·마케팅,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중견 영화제작사를 대상으로 기획 개발 6편 내외의 제작을 지원하고, 중견 규모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3~4편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편가량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또 ‘문화기술 육성사업’으로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시장 진출도 유도한다.

그는 “도내 문화기술 분야 기업·기

관·대학을 대상으로 4개 과제를 선발해 육성할 계획”이라며 “또 23개 기업에 시장진출형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과 상용화, 유통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연천군에서 실시한 ‘오르·빛 재인폭포’라는 미디어파사드 전시를 예로 들면서 지역 문화자원과 공간을 활용해 콘텐츠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설명했다.

경기도 음악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민 원장은 “실력과 뮤지션 발굴과 함께 국내외 음악업계 종사자들과 계속 교류하는 중”이라며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과 ‘경기뮤직네트워크’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뮤지션의 공연 발전과 마케팅, 음원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mk12@

중기제품 판매 기회 팍팍 밀어 드려요

시흥시 ‘곰상회’ 입점기업 모집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 지원

시흥시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시흥곰상회(시흥프리미엄아웃렛점)가 올해 새로운 입점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8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모두 15개 사 내외로 21일 오후 5시까지 신청받는다.

선정 기업에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과 주말 플리마켓 행사 진행 같은 다양한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

시흥곰상회는 도주식회사와 시가 협력하는 지역 상생 협력 매장으로, 2017년 12월 시흥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에 문을 열었다. 다양한 지역 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도 사회적 가치 공동브랜드 ‘작작작’ 브랜드 제품을 판다.

지난해 22개 사가 추가 입점에 모두 209개 업체 제품을 판매했으며, 자체 카페 매출을 더해 약 1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은 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게시물로 입점신청서와 사업



시흥시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시흥곰상회가 올해 새로운 입점기업을 모집한다. 시흥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곰상회 매장 입구. <시흥시 제공>

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따위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주류나 시장에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은 지원에서 제외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창훈 대표이사는 “시흥곰상회는 경

기도와 시흥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제품과 풍성한 판매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도 기업 상품을 전하겠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hihoilbo.co.kr

경기도 보건환경연 1024건 검사
품질 미달 꿀 등 식품 17건 적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이 지난해 ‘식품 안전지킴이 사업’을 활용해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 폐기 조치했다.

12일 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2007년 도입했으며 연구원이 직접 수거부터 검사, 회수·폐기, 행정처분 요청까지 한다. 지난해에는 식품 소비환경 변화와 부적합 판정을 자주 받는 종목인 ▶계절별 생수기 제품 ▶안전성 우려 식품 ▶유통업체 자체 상표(PB) 제품 ▶로컬푸드 제품들 1천24건 검사를 수행했다.

항목별로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81건, 위생용품 70건, 유전자 변형식품(GMO) 179건, 방사능 검사 32건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분말 제품 4건 ▶총질소 미달 한식 간장 4건 ▶품질 기준 미달 벌꿀 3건 ▶산가 초과 과자 2건 ▶보존료 초과 음료 베이스 1건 ▶총산 초과 희석초산 1건 ▶리놀렌산 기준 초과 참기름 1건 ▶pH 부적합 세척제 1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김민기 기자 mk12@khihoilbo.co.kr

道 가맹점 분쟁 해결사 역할 톡톡

4년간 322건 말아 182건 성립
부당 손해배상 70건으로 최다
전국 지자체 조정협 최고 성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자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했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접수 건수는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신청 취하와 소송 계기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의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은 86%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해 처음으로 한 해 100건을 넘겼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 중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

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같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하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성립의 경제효과가 2022년 기준으로 약 28억8천만 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을 참고해 분쟁 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정진욱 기자 panic82@khihoilbo.co.kr



동북아 물류의 리더! 영진공사와 함께 21세기를 이끌어 가십시오

반세기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합물류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항만하역, 운송, CY, CFS, 보세창고, 해상채취/판매, 해외사업, 무역업



http://www.yjent.com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80번길 1(신흥동 2가) TEL I 032)890-1200 FAX I 032)890-1286